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한민국 인천, 서해안 소래 포구가 내 고향입니다. 2남7녀 중 7번째로 장남입니다. 위로 누님이 여섯 분,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은 안 나오고 딸만 계속 나오자 어머니께서는 급기야 서원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 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접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아들이었던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고 업고 다녔답니다. 백일 기념 잔치를 100일이나 하셨답니다.

부친께서는 ‘한국화약’ 이사로 계셨고 정이 많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펌프질을 하셔서 그릇 마다 물을 다 받아 놓고 출근하신 아내 사랑꾼이셨습니다. 우리 9남매가 아프다고 응석을 부려도 짜증 한번 내시지 않고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셨고 많이 아파하면 새벽에라도 우리를 업고 병원에 데려 가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등교 전에 연탄불 위에 연탄 집게를 옆으로 눕혀 여섯 누님들의 신발을 따뜻하게 해서 학교에 가는 순서대로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도 미역국을 끓여다 주실 정도로 인자하셨습니다.

모친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양육을 위해 교직을 그만 두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전체적으로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로 넉넉하고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퇴직 이후에는 잘 모르는 장로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는 위암이라는 병의 고통에 놓이게 되었고 58세에 소천 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친은 51살이셨고 9남매중 둘만 결혼했고 7명을 공부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아내와 많은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 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동업한 그 장로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어머니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우리 집은 즐지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누님들의 학비는 고사하고, 아침마다 버스 차비가 없어 울고 불고 했고 중학생인 나는 군것질하는 친구들 옆에서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없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며 잘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도 자퇴하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술 담배를 배웠고 이런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는 아침 금식, 저녁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때서? 왜 나를 위해 기도하냐구?”라며 어머니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술 담배 끊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와 같은 훈계의 말씀은 한번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만 하셨습니다.

1982년, 해병대에 지원할 때에 가족들은 사람 버린다며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다 버렸는데 버릴 데가 어디 있겠냐”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해병대 생활 중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오면 술을 먹고 깡판을 부리고 타군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예사였고 타군들의 돈과 담배를 뺏기도 했습니다. 출병 때는 주일에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갔지만 고참이 되어서는 하나님은 없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밑으로 그 누구도 종교활동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내 밑으로 종교 활동하면 그날이 죽음이라고 엄포를 놓고 금지시켰습니다. 악당인 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일마다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던 후임들이 아무도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이 살아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신이 살려 줄 것을 믿고 종교활동을 계속해야지!” 그들을 보면서 “역시! 신은 죽었어. 없어.” 라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후임들이 아무도 교회에 가지 못하니 군목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후임들 교회에 보내.” “하나님은 없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뭣하러 교회에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분이야.”라고 단호히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후임들 교회에 보내라!”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서입니다. 천하의 해병이 죽을까 봐서 위험한 훈련들은 열외를 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전출 온지 얼마 안된 상병 한 명이 “유 해병님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보내 주십시오”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두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덜 맞아서 그런가?” “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겠는데.” 이 상병은 이상하게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타를 잘 치던 이 상병은 일과만 끝나면 다가와 흥겨운 기타 반주로 유행

가를 부르도록 유도하면서 어느새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상병의 의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던 마지막 날, 밝은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시면서 부르시다가 돌아 가신 찬송입니다. 추도식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많이 울기도 했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상병이 찬송을 반주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병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클럽에서 기타 반주를 하다가 군에 가는 아들에게 간청한 한 가지 일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 후, 주일 당직병 근무를 서고 있는 저녁 즈음 군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인간 좀 되라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1980년대 TV 프로 중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쇼쇼쇼”라는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어린 양처럼 순하게 무엇에 홀린 듯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그날 설교는 사단 군종 참모님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모두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동근아 동근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지은 많은 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파노라마처럼 한 순간에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때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친 데가 있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훈련병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말년 병장인 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흐느껴 울며 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나 오래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질문에 선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같이 너도 부대에 돌아가서 후임들을 사랑해라. 그만 때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드리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결심과는 다르게 부대에 돌아 와서 후임 병을 구타하고 말았습니다. 무진장 애를 썼지만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줄 담배를 피우다가 구타했던 후임을 불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그 분께 후임을 더 이상 구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자초지종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는 당시 해병대 정황상 후임병은 계속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국 이

해는 안 되었지만 후임이 용서해 달라는 내 말에 “아 알겠습니다”하고 자기 침상으로 돌아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도 싫어 지고 담배도 싫어졌습니다.

1984년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탕자 아들을 위해 아침 금식과 저녁 철야기도를 7년간 해 오시던 어머니가 입이 돌아가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무사히 군에서 제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복학 전에 3째 매형이 지부대표로 계시던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어린 시절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매형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한 날 매형은 자신이 기도원에 갈테니 가방 들고 비서 하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유학 길에 오르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공부하고 있던 터이라 나는 싫었습니다. 허나, 입은 사랑이 떠올라 속 마음과는 다르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들고 기도원을 따라 갔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바뀌어 금식기도가 하고 싶어 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작전이었습니다. 3일 금식기도 동안 제 입에서 생각도 안 해본 복음 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끊임없이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한 겨울 추운 기도원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엉엉 울며 회개만 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동안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지 말고 학교에 복학해서 너처럼 내가 없다고, 내가 죽었다며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가는데 열왕기상20:13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학교에 복학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85년 복학을 한 이후,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학교가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 올랐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캠퍼스로 걸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떠 올랐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구원 받는 학생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강의실로 들어 갔습니다.

원래 전공이 회계학인데 캠퍼스 시절 4년동안 제 전공은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두고 보시던 교수님들 중에는 차라리 신학교를 가는 게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4년 동안 전도하여 제자훈련 공동체 23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며 밥같이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했던 예수님 제자들 중에 키맨이었던 두 명은 월드미션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지금도 함께 세계로 선교회에서 동역 하고 있음에 힘이 됩니다.

졸업하고 89년도에 부산지부 부산대 캠퍼스사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인정받게 된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부산대학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기로 각오하고 달렸습니다. 이전 캠퍼스에서의 사역 성공 경험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팀 리더들과 경쟁심을 가지고 다투며 사역을 했습니다. 마12:25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팀의 좋은 형제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사역은 실패라고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싫어 졌습니다. 당당하게 청산 유수로 전도하고 제자 삼던 나는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뼈저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요15:5)는 것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약3: 15,16)는 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부흥을 주신다는 뼈저린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캠퍼스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터라 아프리카 자비량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 사진 기술을 1년 이상 배우며 비자까지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회 본부를 통해 국내 대학캠퍼스를 개척하도록 플랜을 바꾸었어 주셨습니다. 결혼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역의 성공 경험에 의지하다가 쓴맛을 경험한 나는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에 최우선을 두었고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소원했습니다. 약 8년간의 대학 캠퍼스 개척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좋은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셨고 주님의 제자와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개척기간 중에 얻었던 형제들 중 세 명이 월드미션 신학을 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는 부산지부에서 협력목사로, 한 부부는 국내 대학을 개척목사로, 한 부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회복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 동안 대인 기피증, 말 더듬는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1월1일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각자의 사명으로 나뉘어지면서 우리 부부는 영적인 부모님을 따라 지금의 세계로 선교회 부산지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비전에만 전념하여 교계와 고립된 특징을 가진 네비게이토 선교회와는 좀 다른 출범을 세계로 선교회는 했습니다. 교계와 연합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은사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당시 선교회 간사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을 원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월드미션과 세계로 선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고 세계로 선교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국내의 간사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선교회는 지역교회와 좀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와 성시화 운동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 부산에서 원격으로 신학공부를 시작하던 해에 아내가 탈진 탈수를 두 번이나 하면서 쓰러지더니 급기야 페트병을 대고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코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멈추질 않아서 하루에 두 번씩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처치로 코를 지지고 막아두니 피가 눈으로 흘러나오고 목에는 피 덩어리가 계속 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달 정도 반복이 되니 아내는 숨쉴 힘도 없이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내를 살려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8평짜리 집에서 형제들 밥을 해 먹었습니다. 먹회가 목회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돕는 형제들을 갑자기 몇 명씩 집으로 데려가도 항상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백일이 된 시점에 세 명의 형제들을 집에 데리고 홈 트레이닝을 시키자고 했을 때 아내는 기쁘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캠퍼스에 올라가 QT를 하고 내려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식탁 QT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

께 전도하다가 저녁에 집에가서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에게도 결핵 약을 먹여야만 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방법처럼 함께 생활하며 제자 삼는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3살, 둘째 아들 생후 10개월쯤 되었을 무렵에는 대학생 7명을 데리고 살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같이 먹어대는 형제들을 위해 아침과 저녁을 준비를 했고 점심은 4단 찬합 도시락을 싸 주었고 빨래도 해 주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야 했고, 우리도 개척시작이니 눈물 젖은 한술밥을 먹고 생존했다는 것이 감격입니다. 아들을 잡으러 와서 차에 우격다짐으로 태워 가려는 부모,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는 종손 부모, 등록금으로 협박하던 부모,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부모들 속에서 믿음으로 생존한 귀한 형제들을 위해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봅니다. 아내의 바쁜 음식 준비로 11개월쯤 된 둘째 아들은 싱크대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베어 5바늘을 꿰매었고, 아내는 음식준비를 하다가 손가락을 잘라 5바늘을 꿰매는 일도 추억 속에 있습니다. 부산대학으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에도 아내는 생활 훈련관에 있는 40여명의 형제들 밑반찬과 김치를 끊임 없이 담가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집에 데리고 함께 살며 제자훈련하며 13년간 쉼 없이 질주해온 아내가 이렇게 코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선교회 회장님께서 "이러다가 아내가 죽겠다"며 우리 부부에게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원격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미국 생활인지라 동서 남북이 구분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 들고 일찍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제법 많았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도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도서관에 줄곧 있다가 보니 교수님들과도 톡톡히 만날 수 있었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며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단체에서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에만 몰두 되어 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과 교수님들의 생각을 접하며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서도,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배움이 안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 유학을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도 추억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교회 안 바닥에 타일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 뜨거운 여름에 3박4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무거운 타일과 시멘트와 모래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고 시멘트를 모래와 섞어서 바닥에 퍼 바르고 그

위에 두꺼운 타일을 깔았습니다. 일을 끝마쳤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고 손가락은 붓고 아파서 잘 움직이지가 않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이 참 기뻐했습니다. 온 캠퍼스에서 누렸던 부에나 파크에서의 체육대회는 동문들과 친숙해지는 즐거운 추억으로 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도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월드미션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한국 전역의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제자 훈련 받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계 각 곳에 선교사로 파송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체에서 15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 했고 부산지부에서는 7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여 파송한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현재 세계로 선교회 부산지부에서 국내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저의 직무는 부산지부에서 파송한 개척지부(경희대, 중앙대, 수원 성균관대, 천안 단국대, 구미공대) 사역자 다섯 부부를 세우고 무장하는 일입니다. 부산지부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주일학교, 틴틴, 청년 캠퍼스, 장년4개의 초원과 17개 목장, 노년 1개 목장으로 나누어 세대간 폭넓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28: 19,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계로 선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시대적 상황이 제자 삼는 사역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사도 시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로마시대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계시니 질적인 일꾼 한 사람이라도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99% 헌신된 100명 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로 선교회가 출범할 때 선포했던 비전이 한국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 사역자를 파송하고 자 했는데 헌신된 일꾼을 길러내어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삼고 일꾼 재생산하는 일로 지역교회를 섬기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교회 건물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그 재정만큼의 새 성전을 건축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와 형통과 행복이 있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 건축도 함께 이루어지길 간구 합심하고 있습니다.

돌아 보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 부림 치는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우리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 준 육신의 형제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며 애써 준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역에 바쁘게 막 뛰다가 아이들을 보면 마치 잡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친히 길러 사춘기 방향 때와는 달리, 부모 된 우리와 제자삼는 사역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과 효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내 옆에서 내편이 되어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